

雜 誌 의 整 理

— 學校圖書館을 中心으로 —

趙 基 弘

(天安北中學校 司書教師)

<目 次>

序
 雜誌의 選擇
 受入과 裝備
 雜誌의 目錄
 目次의 索引
 結

序

雜誌 整理에 對해서 言及한다는 것이 어찌 어색하기만 하다. 雜誌 整理의 問題가 새로이 惹起되는 問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土臺가 잡히고 있는 一部 學校圖書館을 除外하고는 新設된 學校圖書館이나 이미 施設되어 있는 多數의 學校圖書館에서도 아주 非圖書資料에 屬하는 雜誌를 組織的으로 整理하려고 着手하고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한 번 論議하여 보는 것도 아주 無意味한 일은 아니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學校圖書館에 있어서 雜誌는 單行本에 比하면 大端히 疎忽한 取扱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 그러나 雜誌가 지니고 있는 意義는 決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學校圖書館의 機能中 資料센터로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서의 價値가 크게 評價되고 있으며 雜誌는 學習活動에 있어서 教科書에서 얻을 수 없는 重要한 學習資料를 提供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解說이 詳細하고 執筆者在 明示되어 있어 教材로서의 利用價値를 크게 評價할 만 하다고 생각된다.

또 雜誌는 新聞과 單行本の 中間位置에 놓여 있으며 新聞이나 放送에 다음 가는 報道性과 大衆性을 지니고 있는 매스·콤의 媒介體인 同時에 강한 娛樂性을 內包하고 있어 圖書館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로서의 機能의 一部를 擔當할 수 있으며 正課學習에서 이룩하는 것보다 높은 次元의 人格形成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雜誌를 適切히 整理하여 成長(身體的으로, 知的으로)하는 靑少年 學生의 利用에 提供하여 주는 일은 學校圖書館의 가장 바람직한 業務中의 하나라고 생각

되는 것이다.

雜誌의 選擇

우리 나라에서 發刊되는 雜誌의 種類는 先進 外國에 比하면 그리 많은 數는 아니다. 最近 市販되고 있는 雜誌의 種類는 約 50餘種 있으며 學會, 機關에서 發行하는 것을 舍하면 그 以上の 種類의 雜誌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며 그들 中에는 學會나 機關에서 發行하는 機關誌는 그렇지 않으나 市販되고 있는 雜誌는 娛樂性이 強해짐에 따라 近來에 와서는 健實하지 못한 內容이 增加되는 傾向이 늘어 나고 있으므로 指導上에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點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雜誌의 取扱에 있어서는 그 種類와 特性을 充分히 考慮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雜誌는 記事 內容面으로 보아 大略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① 大衆的인 것
- ② 特殊層(知識人, 專攻人)을 爲한 것
- ③ 어린이나 學生을 爲한 것
- ④ 家庭을 爲한 것
- ⑤ 其他 等

現在 市販되고 있는 雜誌들 中에서 아리랑, 野談과 實話, 明朗, 사랑, 가요생활, 로맨스, 청춘, 부부 등이 大衆的인 雜誌에 屬할 것이며, 思想界, 現代文學, 創作과 批評, 法典月報, 出版文化, 政經研究, 考試界 등이 特殊層 人事를 爲한 雜誌라고 보겠다. 어린이나 學生을 爲한 것으로는 새 소년, 소년 세계, 學園, 女學生, 進學, 학생 과학 등을 들 수 있으며 家庭을 爲한 것으로는 主婦生活, 女苑, 女像 등이 있다. 그런데 學校圖書館에서 이들 모든 雜誌를 全部 購入하기란 經濟的으로 어렵거니와 政經研究나 商店經營과 같은 特殊專門誌는 活用頻度도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또 아리랑이나 明朗 등의 大衆雜誌는 成長期의 靑少年 學生에게 教育上 備置할 수 없다. 그렇다고 學校圖書館에서는 학생 과학, 學園, 進學, 女學生 等 學生을 爲 主로 編輯된 雜誌만을 購入할 수도 없다. 現代文學이나 寫眞藝術, 바둑 세계 等 大衆 및 特殊層을 爲한 雜誌들 中에도 學生들에게 教養 및 情緒醇化上 必要 不可

雜誌의 目錄

雜誌는 大體로 月刊이 제일 많고 그 밖에 週刊, 季刊, 年刊 等이 있다. 이들 雜誌는 1年分을 모아 製本하여야 한다. 製本이 끝나면 一般圖書와 같이 取扱한다. 卽, 原簿에 登錄하고 分類하여 請求記號를 주고 圖書資料로서의 裝備를 한다. 裝備가 끝나면 書架에 配架하여 館外貸出에까지 活用되며 이때 目錄이 作成되어야 한다. 雜誌는 著作者(執筆者)가 一定치 않음은 周知의 일이며 編輯者도 가끔 바꾸어짐으로 執筆者나 編輯者는 標目으로서의 價値가 없다. 그러므로 雜誌는 誌名을 標目으로 하고 있다. 韓國目錄規則(K.C.R.)5d(1)의 (a)에 雜誌는 最新 誌名을 標目으로 한다"라고 規定지어 있음도 여기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讀者는 圖書館에 例를 들어 "학생과학"이라는 雜誌가 있는가? 있으면 어떤 卷號가 있는가를 알기 爲하여 目錄을 찾아 볼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과학"의 모든 卷號의 所藏(library has)을 한 秩의 카아드에 記載하여야 한다. 卽, 目錄에 있어서는 誌名을 標目으로 맨 윗줄에 基本記入함으로써 카아드의 餘白(space)을 節約하며 一般 書名記入과 區別하기 爲하여 對照事項까지는 普通 文段式 인덴션(indentation)으로 하지 않고 懸경 인덴션(hanging indentation)으로 記入한다.

	誌	名
		出版地, 刊行年(初年—終年) 對照事項. 本館所藏.

(圖表 3)

	학생과학, 第一卷— 서울, 科學世界社, 1966.— 卷, 26cm, 月刊. 本館所藏. V.1— 1966. —
--	---

(圖表 4)

위의 圖表 3은 카아드 記入의 形式의 보기이며 圖表 4는 實際 記入의 한 보기이다. 刊行이 停止되었을 境遇에는 誌名事項의 終卷號와 對照事項의 卷數 및 終刊

年을 記入할 것이나 續刊中에 있는 雜誌에 있어서 위의 세 곳은 空欄으로 두어 次後에 記入할 準備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對照事項의 卷數, 크기 및 誌名事項의 卷號를 省略하고 刊別과 出版事項만 記入하는 수도 있다. 圖表 5는 그의 한 例이고 圖表 6은 廢刊된 雜誌의 目錄記入의 한 例이다.

	現代文學, 서울, 現代譯社, 1955* 月刊. 本館所藏. V.1—V.3. 1955—1957. V.7—V.9. 1961—1963.
--	---

(圖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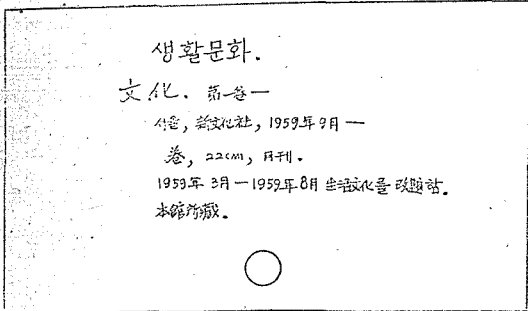
	新天地, 第一卷—第一卷五号 서울, 1946.2.—1948.5. 3卷, 21cm, 月刊. 本館所藏. V.1—V.3-5. 1946.2.—1948.5.
--	--

(圖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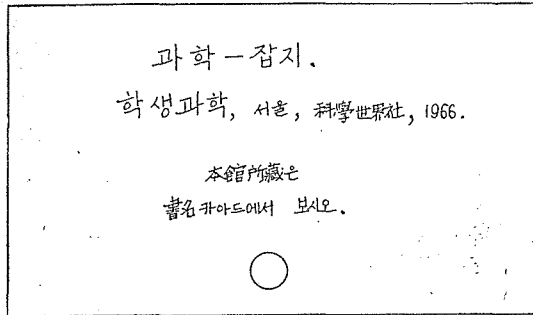
또 所藏記入에 있어서 注意할 일은 記載事項을 읽기 쉽고 補充할 것을 豫想하여 秩에서 빠진 卷號의 자리는 띄어 줄 것이 必要하다. 圖表 5에서 V.1—V.3 과 V.7—V.9 사이에는 한 줄 띄어 쓰여져 있다.

또 雜誌는 때로는 그 誌名을 改稱하는 수도 있고 發行이 停止 또는 中止되는 境遇도 있다. 誌名을 改稱한 境遇에는 改題된 誌名을 標目으로 주되 舊誌名은 副出하거나 또는 參照해 주며 그 事實을 註記하여야 한다. [K.C.R. 5d (1)의 (b)] 發行이 停止된 雜誌는 誌名이나, 長期間 通用된 誌名을 標目으로 하며 一時 中止되었다가 再發行되는 雜誌에 있어서는 以前 刊行物과 卷號數가 繼續되지 않는 것은 同一한 誌名일지라도 새로운 雜誌로 看做하고 編目한다. [K.C.R. 5d (1)의 (c) 및 (d)] 圖表 7은 "生活文化"의 改題 "文化"誌를 例로 註記 및 副出을 例示한 것이다.

또 "학생과학", "音樂世界", "經營研究"와 같이 特殊主題를 가지는 雜誌에 있어서는 主題副出도 必要하며 副出카아드는 普通과 같이 基本카아드를 copy 하고 適當한 主題名을 標目으로 記入하여 作成하면 된다.



(圖表 7)



(圖表 8)

勿論 單位카아드를 作成하여도 좋으나 所藏註記(library has)는 일일이 記入하지 않고 “本館所藏은 書名카아드에서 보시오”로 參照해 주는 수도 있다. 圖表 8은 主題副出과 所藏註記의 參照로 記入한 例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雜誌의 目錄은 1年分을 모아 製本이 끝난 後에 目錄을 作成하겠으나 規模가 작은 學校圖書館에 있어서 雜誌를 正式 製本하기란 經濟的으로도 時間的으로도 어려운 일이겠으나 假製本 程度라도 하여 保管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間或 缺號가 있을 境遇는 所藏註記의 卷號를 特히 明確히 記載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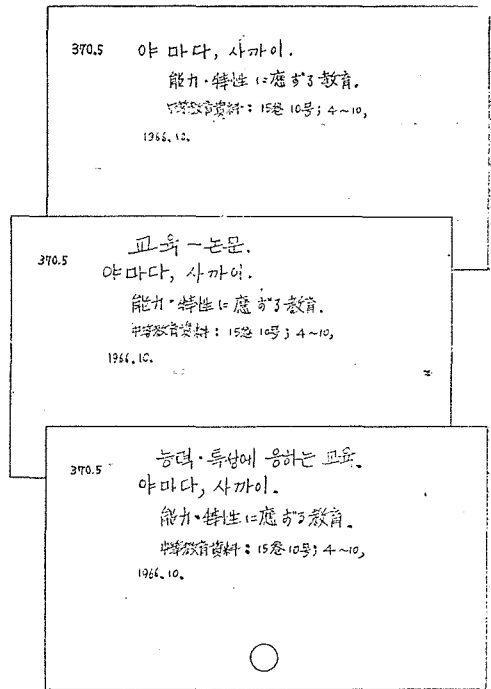
目次の 索引

雜誌는 그 記事의 內容이 千差萬別 하다. 한 冊 속에 여러 가지 內容의 記事가 記載되어 있으며 또 每號마다 같은 內容의 記事가 記載될 수는 없다. 이것이 또한 單行本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雜誌는 어느 卷號가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도 그 卷號의 記事內容을 알 수 없으므로 目錄카아드만으로는 事實上 그 效用이 그리 크지 못하다. 讀者가 要求하는 記事가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가를 손쉽게 檢索할 수 있는 方法은 雜誌의 目次索引을 作成하여 주는 길이다. 그렇다고 雜誌目次の 全部를 索引한다는 것은 經濟的, 時間的, 勞力의 消費만 물론 極히 無意味한 일

이다. 索引을 作成하기 爲하여서는 學校圖書館으로서의 必要性 乃至 重要性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條件을 考慮하던 中을 것으로 믿어진다.

- ① 學習活動에 必要한 記事
- ② 클럽 活動의 參考가 될 수 있는 記事
- ③ 教師들의 敎職研修에 必要한 論文
- ④ 敎養的 價値가 크고 長期的으로 保存할만한 內容의 記事
- ⑤ 學校圖書館에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人物의 傳記 記事
- ⑥ 對立的 學說의 論爭 記事

等은 學校圖書館에서도 目次の 索引目錄이 作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索引目錄 作成에 있어서는 勿論 執筆者, 主題名(subject), 題名(title)으로 檢索할 수 있게 作成하여야 한다. 圖表 9는 日本 文部省 中等教育課程에서 編輯한 “中等教育資料”誌에 記載되어 있는 山田 榮氏의 “能力·特性에應ずる 教育”의 執筆者, 主題, 題名으로의 索引目錄을 例로 들었다.



(圖表 9)

이로써 讀者는 願하는 內容의 記事를 目錄에서 檢索할 수 있을 것이며 雜誌가 지니는 資料로서의 使命을 다 하게 될 수 있다. 目次索引 目錄은 一般 圖書의 目錄函에 配列하지 않고 別途로 雜誌의 目次索引의 目錄函을 장만하여 두고 亦是 辭典體로 配列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6面に 繼續)

은데, 그 이유는 一般의 藏書量의 不足에서이지만 非公式的이나마 서울市內의 4個 大學 사이에서는 必要할 때마다 資料交換을 許可함으로써 奉仕하고 있다.

圖書館들의 國家綜合目錄 및 繼續刊行物 綜合目錄 같은 國家書誌奉仕의 不足으로 다 같이 困難을 받고 있다.

人文科學 爲主로부터 技術科學部門 爲主의 文教部의 當面政策 轉換은 얼마 안 가서 圖書館藏書에도 影響을 줄 것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도 韓國의 科學, 技術, 産業 및 專門職業 發展에 適合한 資料들을 보다 많이 所藏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利用될 수 있는 機關을 통한 資料의 增大로서 大學圖書館奉仕 擴大計劃이 반드시 發展될 수 있도록 着手되어야 하고, 따라서 資料蒐集과 適切한 奉仕計劃도 짜여져야 한다.

視聽覺資料는 大部分의 韓國大學에서 各各 獨立의 視聽覺 센터에서 取扱하고 있다. 이러한 慣例 때문에 圖書館 責任이 非圖書資料, 視聽覺器具 또는 視聽覺資料奉仕에는 全然 考慮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國立 마이크로 필름 奉仕機關 같은 것이 早速히 必要하다. 또한 寫眞複寫器具도 必要하다. 韓國 圖書館에 있어서는 제록스(Xerox)施設을 利用할 곳이 없다. 學生들에게 宿題로서 指定된 圖書를 얻기 어려우므로 盜難과 切取가 많게 된다.

c) 機械的인 暗記와 學術研究圖書館

大學 自體에 있어서 重要한 要素가 缺乏되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效果的인 圖書館 利用은 不可能한 것이다. 卽 그것은 “圖書利用” 指導法이다.

藏書量과 教授方法의 相互作用은 어느 程度 “답과 달걀” 關係 처럼 類似하다. 韓國의 教授들은 必要한 圖書가 없으므로 圖書利用方法에 따른 教授方法을 使用할 수 없다고 몇몇이 主張하고 있다. 한 英文學 教授가 말하기를 碩士學位課程인 學生을 Robert Frost에 關한 論文을 쓰도록 하기 위해 圖書館에 보냈으나 名文集에

收錄된 몇 篇을 除外하고는 Frost의 著作을 發見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逸話는 無限이 많을 것이다. 가령 韓國의 圖書館이 強力하다 할지라도 教育目的의 再考慮에 基礎를 둔 課程의 再組織 없이 圖書館 利用의 極大化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단 곳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韓國의 教育은 古代 中國인들이 力說하고 日本人들에 의하여 더욱 強調된 機械的暗記方式이 直接 傳來하였다. 年歲가 많은 教授들은 이러한 傳統 속에서 모든 教育을 받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研究方法이나 또 “問題解決” 方法을 가르치지도 않으며 또한 個別化 研究를 強調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教授들은 오히려 學生들의 正當한 圖書館의 必要性에 대한 疑心조차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分들은 教授만이 그의 個人的인 研究와 講義準備로서 圖書館이 必要한 것이고 學生은 歷史的으로 받아들인 教科書—講義—復習—試驗이란 循環에서 너무 떨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明白히 教授들이 그들 教室에서 보다 폭 넓은 圖書利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學生들로부터 높은 水準의 圖書館利用의 要求가 있기 前에는 完全한 規模의 圖書館 開發이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大學에서의 教授方法에 그와 같은 革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徵兆가 보이고 있다. 西洋에서 教育 받은 教授들이 圖書를 利用하여 指導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學生들은 教育 받는다는 것은 단지 事實만을 蓄積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漸漸 깨달아 오고 있다. 現在 現代的인 圖書館奉仕를 받고 있는 中高等學校 學生들이 數年內로 大學에 들어 오게 되면 發展된 大學圖書館 要求에 대한 壓力을 또한 期待할 수 있다. 그러한 壓力은 藏書가 現在 水準의 職員과 建物에 相應하도록 增加하여야 한다는 것을 要求하게 될 것이다.

(40面에서 繼續)

結 語

우리 學校圖書館에서 取扱해야 할 非圖書資料는 그 種類가 相當히 많다. 新聞, 雜誌, 버어터컬 파일, 필름, 레코오드, 슬라이드, 地圖, 葉書, 小冊子, 傳單 等等, 或 우리 周邊에는 只今까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훌륭한 資料가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이러한 資料를 蒐集, 保管, 整理하여 여러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것이 圖書館의 使命이라면 어떠한 資料도 그 重要性의 輕重은 없을 것이며 어떤 資料도 未整理된 채로

死藏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學校圖書館의 大多數가 新設이요 出土發이므로 아직 여러 가지 資料가 未整理 狀態로 쌓여 있어 泰山 같은 業務量에 壓迫感을 느끼며 지내면서도 應分의 待遇를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우리 一線 司書教師인 것도 事實이다. 그러면서도 司書教師들은 學校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獻身的인 奉仕에 努力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各種의 非圖書資料도 한 가지 한 가지 整理하여야 할 時期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모든 教育資料가 學校圖書館에 歸屬되고 學校圖書館의 本然의 姿勢를 찾아 맡은 바 使命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진다.